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에듀센터 내년 해남에 착공

국가과제 해결 핵심 거점 시설 내년 정부 예산 110억원 확보

2028년 조기 가동...미래성장동력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남에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국가과제를 해결할 핵심 거점 시설들이 본격 조성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50억원과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비용 60억원이 반영돼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전문 전담 기관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594억여원을 투입해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 3ha 부지에 조성되는 농식품부 직접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8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해남군이 최종 선정된 이후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지난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농업 연구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 중요 과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탄소중립 교육을 총괄할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공사비 60억원을 확보해 내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들어서는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운영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환경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는 시대, 교육·체험·전시 등을 통합한 국가 차원의 환경학습 인프라로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389억원으로 국비·지방비·민자가 함께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다. 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도 과수연구소를 통합 이전하고, 약 100ha 규모의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대응센터 등이 본격 가동되면 국가 과제 해결에 해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나주시 혁신도시 입주 IT기업 임대료 지원

최대 2000만원 2년간 보조

나주시가 빗가람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기술(IT)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해 입주 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 공실 해소와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빗가람혁신도시 내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정보기술 업종 기업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상사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여기에 공고일 이후 연 300만원 이상(월 임차료 합계 기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입차 계약 이후 연 단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나주시는 전략적 발흥·유치 기업과 관외 이전 기업, 혁신도시 내 공실률이 가장 높은 빗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정책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업 대상도 구분했다.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빈 상가 문제 해결과 정보기술기업 유치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AI,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차 오름 팸투어 참가자들이 전통 다례 및 차 블렌딩 체험을 통해 순천 전통차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마음의 치유, 차 오름’ 팸투어

여행 인플루언서 등 20여명

겨울 힐링 미식여행·다례 체험

순천시가 지난 14일 여행 인플루언서와 관광 관계자 20명을 초청해 겨울 감성 힐링 프로그램 ‘마음의 치유, 차 오름’ 팸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팸투어는 순천 전통차 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한 사전검증 차원에서 기획됐다. 선암사 야생차밭, 명인차 체험(신광수), 다식(茶食) 쿠킹클래스 등 순천만이 가진 고유의 힐링 자원에 미식 체험을 결합한 겨울 감성형 코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선암사 야생차밭 스토리 체험 ▲신광수 명인과 함께하는 다례(茶禮) 체험 ▲다올재 녹차 훈증 체험 ▲만들세 잡쌀떡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차와 겨울 풍경이 어우러진 순천만의 미식·휴식 콘텐츠를 경험했다. 또한, 참여 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SNS 채널

을 통해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와 체험 후기를 공유하며 순천 전통차 관광의 매력을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방문한 한 인플루언서는 “순천은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온전히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도시였다”며 “전통차를 미식과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힐링 투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팸투어에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차 관광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K-미식벨트 전통차 분야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관광객 대상 정식 관광상품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의 전통차 자원이 가진 매력을 지속발굴해 차별화된 미식·체험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청년꿈터 ‘겨울맛이 원데이클래스’ 성료

방향제·선물 만들기 프로그램

광양청년꿈터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청년특화 공간 ‘미소청년(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함 청년)’에서 진행한 겨울맛이 원데이클래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미소청년’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광양중앙도서관 본관 3층에 조성된 청년 활동 공간으로, 지난 4월 개소했다. 취업·창업 관련 활동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실습 장비와 취업 정보 자료를 갖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광양청년꿈터는 광양을 청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광양청년꿈터’의 일환으로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화과자·실버링·오란다 만

들기 등 청년꿈터에서 운영해 온 기존 원데이클래스에 이어, ‘미소청년’에서는 ‘향기로운 나만의 보석 방향제 만들기’와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도어발 만들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여자 전원이 수업 내용과 운영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만족’으로 응답했다. 참여 청년들은 “뽕 깊었다”, “성취감 느꼈다” 등 다양한 소감을 전했다. 오영숙 광양청년꿈터 센터장은 “올해 처음으로 분기별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며 참여 청년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꿈터 프로그램의 규모와 다양성을 확대해 더 많은 광양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목포역~고하도 등 24km 지정

목포시가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제11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최종 지정됐다. 지정 구간은 목포역을 시작으로 해양대학교, 해상케이블카, 목화체험장, 산정농공단지를 거쳐 다시 목포역으로 이어지는 총 24km 순환 노선이다. 유달동·북항동·원산동 등을 포함해 목포 도심과 관광지, 항만 배후 산업권을 폭넓게 연결한다. 목포 시범운행지구는 ▲도심·관광·항만을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구축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플랫폼 확보 ▲교통약자 및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 증진 ▲관광·스마트시티·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목포시는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2대를 활용한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인프라 구축과 시범 테스트를 진행 후 2027년부터 참여기관 주도로 본격적인 운행 및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원도심과 산업 거점, 접근성 취약 지역, 목포역, 해상케이블카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 거점을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도심과 관광지, 항만이 근접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태양광산업협회

기자재 국산 제품 사용 협약

신안군이 신안 태양광산업협회(12개 태양광 발전사 및 회원사)와 ‘태양광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신규 또는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 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며 기술 교류·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인 신안군이 국내 태양광산업을 이끄는 거점 지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금융감독원
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Association